

## 지방 사립대학교 재학생의 학습몰입과 학업중단과의 관계: 대학생활적응의 매개효과

명성민\*, 이흥기\*\*

### A Relationship of Learning flow and Dropout in Local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College Adaption

Sung-Min Myoung\*, Hong-Ki Lee\*\*

#### 요약

본 연구는 지방대학교에서 학습몰입과 학업중단과의 관계에서 대학생활적응의 매개효과를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충북소재 대학생 281명을 대상으로 확증적 요인분석, Baron and Kenny의 3단계 위계적 회귀분석 및 Sobel 검정을 적용하여 학습몰입과 학업중단에 있어 대학생활적응의 매개적 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학습몰입이 높을수록 학업중단이 낮게 나타나며,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들 중 학업적응, 사회적 적응은 학습몰입과 학업중단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매개하며, 대학환경적응은 완전매개 하였으며, 개인-정서적응은 매개효과가 존재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학습몰입을 높이고 매개변인인 대학생활적응을 증가시켜 학업중단을 낮추기 위한 학교의 지원과 환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Keywords : 대학생활만족도, 학업중단, 학습몰입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mediation effect of college adaption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flow and university dropout in local university. For this study, 281 university students in Chungbuk region were applied to assess the mediation effect of college adaption for learning flow and university dropout by using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of Baron and Kenny, and Sobel test. The results show that more learning flow tended to have more difficulty in university dropout, and it was founded that academic and social adjustment for university adaption(mediator) partially mediated the influence of learning flow (independent variable) on university dropout.

• 제1저자: 명성민 • 교신저자: 이흥기

• 투고일 : 2015. 4. 15. 심사일 : 2015. 5. 11. 게재확정일: 2015. 6. 12.

\* 중원대학교 보건행정학과(Department of Health Administration, Jungwon University)

\*\* 중원대학교 경영학과(Department of Management, Jungwon University)

dropout (dependent variable), institutional adjustment was fully mediated, and personal-emotional adjustment was no mediation effec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suggest a implication to decrease university dropout through increasing learning flow and university adaption.

▶ Keywords : Univeristy adaption, dropout, learning flow

## I. 서 론

현재의 국내 대학들은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변화의 시기에 당면하고 있다. 반상진 등(2013)에 의하면, 저출산에 의한 학령인구 감소추세로 대학정원이 고교졸업생 수에 비해 2020년에는 35,000 명, 2025년에는 44,000 명, 2030년에는 11,000 명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1].

더불어 많은 대학들이 재학생의 제적, 타 대학으로의 편입 또는 자퇴 등으로 인한 제학 중 학업중단의 증가로 인해, 입학 자원의 감소와 더불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김경희(2011)에 의하면, 2000년 비수도권 지방 전문대학의 경우 학업중단률이 5.0%, 4년제 대학의 경우 3.9% 였으며, 2004년도의 경우 전문대학은 7.7%, 4년제 대학은 5.0%로 증가하다가, 2009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학업 중단률은 전반적으로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서 높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2].

학업중단자의 증가는 대학의 재정적인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는 학업중단가능성이 높은 재학생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필요로 하며, 이를 토대로 학생관리에 적용하여 궁극적으로는 학업 중단자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어한다 [3]. 또한 많은 연구들에서 대학생의 학업중단 혹은 중도탈락은 1997년 IMF이후 국가 경제위기 및 노동시장의 침체,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졸업자가 사회적 대우의 격차, 교육기관 및 학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 대학의 특성 및 학생의 부적응, 4년제 대학 편입학 모집정원 확대, 정책학령인구 감소와 대학정원정책 이외의 경제변화 등과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어서, 결국에는 학생개인의 학업중단만이 아닌 사회문제로도 확대되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4][5][6][7].

Csikszentmihalyi(1990)는 몰입(flow)의 정의를 삶이 고조되는 순간에 몰호르듯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느

낌으로 활동에 집중하거나 어떤 과제를 해결할 때 나타나는 심리상태라고 하였다. 이는 대단히 즐거운 심리적 상태로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것을 의미한다 [8].

박성익과 김연임(2006)에 의하면, 학습몰입(flow on learning)이란 학습과제 해결이나 어떤 학습활동에 완전히 빠져 들어 오로지 과제해결을 위하여 모든 정신과정과 활동을 하나로 모으는 최상의 집중경험이라고 정의 하였으며, 많은 연구에서 몰입 빈도가 높은 사람이 많은 사회일수록 삶의 질을 구성하는 주요한 척도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8][9]. 특히 노수림 등(2014)은 학습상황에서의 몰입은 학생들의 학습결과 및 학습과정을 반영하며, 또한 학습동기와 학업결과와 관계를 매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제시하였다 [10]. 이러한 관점에서 학습몰입의 경험이 많은 대학생일수록 자신의 학업 및 전공에 만족하여 학업중단의 가능성이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몰입의 경우 사회나 문화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는데 [8], 전경애와 박정환(2010)의 연구에서는 지방대학생들의 무기력이 평균보다 높아서 학교만족도 및 학업중단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11].

본 연구에서는 이에 착안하여 지방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몰입과 학업중단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대학생활적응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이에 대한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대학생활적응은 대인관계, 정서, 학업적 측면에서 대학생들이 대학이라는 환경 내에서 대학생활의 요구에 대처하는 적절한 반응을 의미한다. 이는 대학 내의 물리적, 제도적, 인적 환경과 학생 개개인이 지니는 다양한 특성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알려져 있다 [12].

여러 선행연구에서 학습몰입과 학교적응의 관계에 대하여 긍정적 양의 관계를 가진다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학습몰입이 대학생활적응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성이 존재함을 보고하였다. 박선영(2008)은 대학시기에 느끼는 삶의 만족

과 몰입경험의 관계를 제시하였으며, 이숙정(2011)은 대학생의 학습몰입과 학교생활의 적응/부작용과의 연관성 및 매개요인을 설명하였다. Rossin 등(2009)은 몰입경험과 전공학습역량 및 학업만족도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주장하였다 [9][13].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 학습몰입, 학업중단,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아직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몰입이 학업중단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를 밝힘으로서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생활적응요인의 중요성을 주장할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학습몰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업중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대학생활을 지도하기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나아가 대학생활적응이라는 요인을 통해 학업중단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같은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학습몰입과 대학생활적응은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학습몰입이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칠 때, 대학생활적응은 매개효과를 갖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학습몰입은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고, 대학생활적응은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 <그림 1>과 같이 학습몰입을 선행변수로, 대학생활적응을 매개변수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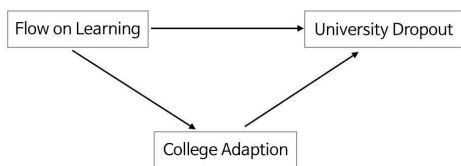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Figure 1. Research model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충북 소재 3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1~3학년 학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측정변수에 대한 학년, 전공별 특성 등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의료보건계열, 인문사회, 이공계열의 남녀학생들을 대상으로 3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수집된 자료에서 불성실한 응답 또는 회수되지 못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81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 3. 측정도구 및 신뢰성

### 3.1 학습몰입

본 연구에서 학습몰입을 측정하기 위하여 Csikszentmihalyi(1990, 1996)의 몰입개념에 기초하여 김아영 등(2010)이 제안한 척도를 종합하여 축약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14][15].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몰입이 높다. 본 연구에서의 크로바 알파(Cronbach's  $\alpha$ )로 확인한 신뢰도는 72.91% 였다.

표 1. 학습몰입의 문항  
Table 1. Questionnaire for flow on learning

Questionnaire	Mean
나는 지금의 대학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스스로 찾아서 처리할 것이다	3.16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들은 현재 나의 학업과 관련되어 있다	3.33
나는 내 학업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몰입되어 있다	3.04
나는 현재 나의 학업과 떨어져지 힘들만큼 강하게 결부되어 있다	2.70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내 학업에 할애한다	2.79
나의 대부분의 개인적인 인생목표는 학업과 관련되어 있다	3.09

### 3.2 대학생활적응

본 연구에서 측정된 대학생활적응 척도는 Baker와 Siryk(1989)가 개발한 대학생활적응도검사(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기초로 하여 현진원(1992)이 번안 및 수정한 것을 본 연구에서는 김효원(2005)의 연구에서 5점 Likert 척도로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16][17].

전체 문항들은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 적응, 대학환경 적응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업적응은 대학생활에서 교육적 요구의 적응 정도이며, 사회적응은 대학생활에서 대인·사회적 요구와 관련된 정도를, 개인·정서적 적응은 대학생활에서 겪는 심리적·신체적 불편감과 관련된 정도이며, 자신이 속한 대학의 유대감 또는 전반적인 호감·만족과 관련된 정도는 대학환경 적응을 의미한다 [10][17].

본 연구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대학생활적응의 전체 신뢰도는 92.91%로 나타났고,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표 2.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과 요인별 신뢰도  
Table 2. Factors of SACQ and Cronbach's  $\alpha$  for each factors

Factors	Cronbach's $\alpha$
Academic Adjustment	79.75%
Social Adjustment	80.79%
Personal-Emotional Adjustment	89.12%
Institutional Adjustment	78.63%
Total	92.91%

### 3.3 학업중단

일반적으로 학업중단과 관련된 개념은 중도탈락(withdrawal), 자퇴(dropout), 편입학(transfer) 을 의미하며, 이는 학업지속과 학업중단의 2가지 상태로 구분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2]. 위의 개념에 기초하여 설문지에 <표 3>의 문항으로 학업중단여부를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중단여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76.79%로 나타났다.

표 3. 학업중단의 문항  
Table 3. Questionnaire for dropout

Questionnaire	Mean
최근에 나는 다른 대학으로 옮길 생각을 많이 하곤 한다	3.50
나는 요즘 휴학을 했다가 나중에 공부를 마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한다	3.58

## 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PASW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든 통계적 검정의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몰입, 대학생활적응, 학업중단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둘째, 대학생활적응의 척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증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학습몰입, 대학생활적응, 학업중단 간의 상호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이용하였다. 넷째, 학습몰입과 학업중단간의 관계에서 대학생활적응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Baron 과 Kenny (1986)이 제안한 3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완전매개와 부분매개효과의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대학생활적응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확인을 위하여 Sobel 검정

(1982)를 실시하였다 [18][19].

## III.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척도타당성 검증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 <표 4>와 같다. 총 281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빈도분석을 수행한 결과, 성별의 경우 여자가 105명(37.40%), 남자가 176명(62.60%) 이었으며, 학년은 1학년이 169명(60.20%)으로 가장 많았으며, 2학년이 76명(27.00%), 3학년이 36명(12.80%)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경기지역이 114명(40.60%)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서울·경기의 지역이 96명(34.20%), 서울지역이 71명(25.30%)으로 나타났다.

표 4.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Table 4.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		frequency	percent(%)
Gender	Male	176	62.60
	Female	105	37.40
Grade	1	169	60.20
	2	76	27.00
	3	36	12.80
Region	Seoul	71	25.30
	Gyeonggi	114	40.60
	Etc	96	34.20

또한 척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매개변수인 대학생활적응에 대하여 확증적 요인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모형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 수행결과  $\chi^2 = 35.14(p\text{-value} < 0.001)$ 이었으며, 근사평균오차제곱근(roots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이 0.014, 표준적합지수(normed fit index: NNFI)가 0.945,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index: IFI)가 0.948, 비교적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가 0.948로서 양호한 모형이라고 판정하였다. 그러므로 이론변수간의 변별타당도와 측정변수간의 수렴타당도는 양호하다고 판단하였다.

### 2. 상관분석 결과

학습몰입, 대학생활적응, 학업중단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주요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major factors

Major Factors	F1	F2	F3	F4	F5	F6
F1	-					
F2	0.664*	-				
F3	0.567*	0.398*	-			
F4	0.688*	0.812*	0.458*	-		
F5	0.580*	0.404*	0.283*	0.482*	-	
F6	-0.436*	-0.558*	-0.304*	-0.832*	-0.355*	-

F1=Academic Adjustment, F2=Social Adjustment, F3=Personal-Emotional Adjustment, F4=Institutional Adjustment, F5=Flow on Learning, F6=University Dropout  
\*p-value<0.01

상관관계 분석결과 대학생활적응의 4개 하위요인(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 적응, 대학환경 적응)과 학습몰입 간에는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여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p-value<0.01). 대학생활적응 하위 4개 요인과 학습몰입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학습몰입과 학업적응  $r=0.580$ , 사회적응  $r=0.404$ , 개인·정서적 적응  $r=0.283$ , 대학환경 적응  $r=0.482$  로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학습몰입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업중단과 대학생활적응의 4개요인, 학습몰입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모두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고( $r=-0.304\sim-0.832$ ), 마찬가지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p-value<0.01).

### 3. 학습몰입과 학업중단의 관계에서 대학생활적응의 매개효과

대학생활적응이 학습몰입과 학업중단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Baron과 Kenny가 제시한 3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완전매개와 부분매개효과의 검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단계에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단계: 독립변수인 학습몰입이 매개요인인 대학생활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2단계: 독립변수인 학습몰입이 종속변수인 학업중단에 유의한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3단계: 독립변수인 학습몰입과 매개요인인 대학생활적응을 동시에 투입하여 학습몰입이 학업중단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 한 후 대학생활적응이 학업중단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또한,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매개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감소하거나 유의하지 않아야 한다. 전자의 경우 부분매개효과가 존재한다고 하며, 후자의 경우 완전매개효과가 존재한다고 해석한다 [18].

#### 3.1 대학생활적응의 매개효과 검증

학습몰입과 학업중단간의 관계에서 대학생활적응의 매개 효과는 <표 6>에 요약되어 있다. 3단계 위계적 회귀분석 수행 전 독립변수인 학습몰입과 매개변수인 대학생활적응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진단하기 위해 분산확대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확인한 결과 10이하로서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표 6>에서 보여주듯이 학습몰입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1단계)는 회귀계수  $\beta=0.38$ 로 추정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value<0.01). 학습몰입이 학업중단에 미치는 영향(2단계)은 회귀계수  $\beta=-0.65$ 로서 음의 관계가 존재하였으며 1단계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value<0.01).

표 6. 학습몰입과 학업중단간의 관계에서 대학생활적응의 매개효과  
Table 6. Mediating effect of college adaption between flow on learning and university dropout

Step	variation	$\beta \pm SE$	$R^2$	F*
1	flow → adaption	0.38±0.04*	0.2622	99.17*
2	flow → dropout	-0.65±0.10*	0.1271	40.62*
3	adaption → dropout	-1.51±0.13*	0.2871	98.29*
	flow → dropout	-0.07±0.10		

\*p-value<0.01

학습몰입을 통제 한 후, 대학생활적응이 학업중단에 미치는 영향(3단계)를 살펴본 결과, 대학생활적응은 학업중단에 음의 영향을 미치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eta=-1.51$ , p-value<0.01). 마지막으로 매개변수인 대학생활적응을 통제 한 후 학습몰입이 학업중단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대학생활적응이 학습몰입과 학업중단의 관계에 완전매개효과가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Sobel 검정(1982)을 실시한 결과 검정통계량  $z$  값이 2.34로서 임계치 1.96보다 크게 나타나 학습몰입과 학업중단의 관계에서 대학생활적응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value=0.0191). 즉, 학습몰입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대

학생활적응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이는 학업중단을 낮추는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2 학업적응의 매개효과 검증

추가적으로 학습몰입과 학업중단간의 관계에서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 중 학업적응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학업적응과 학업중단, 대학생활적응의 결과는 <표 7>과 같다.

1단계에서 학습몰입이 학업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 $\beta = 0.51, p\text{-value} < 0.01$ ), 2단계에서 학습몰입이 학업중단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3단계에서 학습몰입과 학업적응을 모두 투입했을 때 두 변수의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학습몰입에 대한 학업중단의 영향력이 두 번째 단계보다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유의한 결과로 나타나서 ( $\beta = -0.65 \rightarrow \beta = -0.24$ ), 학습몰입과 학업중단의 관계가 학업적응에 의해 부분매개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Sobel 검정결과 학업적응의 부분매개효과가 검정통계량  $z$  값이 2.03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p\text{-value} = 0.0423$ ).

표 7. 학습몰입과 학업중단간의 관계에서 학업적응의 매개효과  
Table 7.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adjustment between flow on learning and university dropout

Step	variation	$\beta \pm SE$	$R^2$	F*
1	flow $\rightarrow$ academic	0.51 $\pm$ 0.04*	0.3480	148.90*
2	flow $\rightarrow$ dropout	-0.65 $\pm$ 0.10*	0.1271	40.62*
3	academic $\rightarrow$ dropout	-0.80 $\pm$ 0.14*	0.2101	39.55*
	flow $\rightarrow$ dropout	-0.24 $\pm$ 0.12*		

\*p-value<0.01

### 3.3 사회적응의 매개효과 검증

사회적응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학습몰입과 학업중단간의 관계에서 사회적응의 매개효과  
Table 8. Mediating effect of social adjustment between flow on learning and university dropout

Step	variation	$\beta \pm SE$	$R^2$	F*
1	flow $\rightarrow$ social	0.29 $\pm$ 0.04*	0.1627	54.21*
2	flow $\rightarrow$ dropout	-0.65 $\pm$ 0.10*	0.1271	40.62*
3	social $\rightarrow$ dropout	-1.32 $\pm$ 0.14*	0.3314	74.79*
	flow $\rightarrow$ dropout	-0.27 $\pm$ 0.10*		

\*p-value<0.01

1단계에서 학습몰입이 사회적응의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

치며, 2단계에서도 학습몰입과 학업중단간의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학습몰입과 사회적응모두를 투입한 3단계에서도 두 변수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학습몰입에 대한 학업중단의 영향력이 2단계보다는 3단계에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학업적응의 매개효과와 동일하게 부분매개효과가 존재하였다. Sobel 검정결과 검정통계량  $z = 2.00$  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p\text{-value} = 0.0455$ ).

### 3.4 개인-정서적응의 매개효과 검증

학습몰입과 학업중단간의 관계에서 개인-정서적응의 매개효과는 <표 9>에 요약되어 있다. <표 9>에서 보여주듯이 학습몰입이 개인-정서적응에 미치는 영향(1단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beta = 0.30, p\text{-value} < 0.01$ ), 학습몰입이 학업중단에 미치는 영향(2단계)도 마찬가지로 유의하였다. 학습몰입의 영향력을 통제 한 후, 개인-정서적응이 학업중단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음의 관계를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개인-정서적응을 통제 한 상태에서 학습몰입이 학업중단에 미치는 영향을 음의 관계를 가지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eta = -0.53, p\text{-value} < 0.01$ ). 또한 학습몰입이 학업중단에 미치는 영향이 2단계에 비해 3단계가 감소하여 부분매개하는 조건을 만족하지만, 매개효과에 대한 Sobel 검정결과 검정통계량이 1.17 로서 부분매개효과 유의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p\text{-value} = 0.2457$ ).

표 9. 학습몰입과 학업중단간의 관계에서 개인-정서적응의 매개효과  
Table 9. Mediating effect of social-emotional adjustment between flow on learning and university dropout

Step	variation	$\beta \pm SE$	$R^2$	F*
1	flow $\rightarrow$ personal/emotional	0.30 $\pm$ 0.06*	0.0744	22.44*
2	flow $\rightarrow$ dropout	-0.65 $\pm$ 0.10*	0.1271	40.62*
3	personal/emotional $\rightarrow$ dropout	-0.40 $\pm$ 0.09*	0.1001	30.30*
	flow $\rightarrow$ dropout	-0.53 $\pm$ 0.10*		

\*p-value<0.01

sobel test  $z = 1.1608, p\text{-value} = 0.2457$

### 3.5 대학환경적응의 매개효과 검증

학습몰입을 독립변수로, 대학환경적응을 매개변수로, 학업중단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매개효과 분석 결과를 보면 <표 10>과 같다.

학습몰입은 대학환경적응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 ( $\beta = 0.45, p\text{-value} < 0.01$ ), 다음으로 학습몰입은 학업중단

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학습몰입과 대학환경적응을 함께 독립변수로 투입했을 때는(3단계) 학습몰입의 예측력이 두 번째 단계보다 떨어졌으나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학습몰입과 대학중단의 관계에서 대학환경적응의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검증된 완전매개효과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검증을 위한 Sobel 검정결과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z = -3.36$ ,  $p\text{-value} < 0.01$ ).

표 10. 학습몰입과 학업중단간의 관계에서 대학환경적응의 매개효과  
Table 10. Mediating effect of institutional adjustment between flow on learning and university dropout

Step	variation	$\beta \pm SE$	$R^2$	F*
1	flow → Institutional	0.45±0.05*	0.2271	81.98*
2	flow → dropout	-0.65±0.10*	0.1271	40.62*
3	Institutional → dropout	-1.67±0.07*	0.6973	323.53*
	flow → dropout	-0.10±0.07		

\*p-value<0.01  
sobel test  $z = -3.358$ ,  $p\text{-value} < 0.001$

#### I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학습몰입, 학업중단 및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충북 소재의 4년제 대학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재 학습몰입과 학업중단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학습몰입과 학업중단과의 관계에서 대학생활적응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몰입, 학업중단,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업중단과 대학생활적응, 학습몰입간의 관계는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으며, 대학생활적응, 학습몰입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학습몰입과 학업중단, 대학생활적응 간의 높은 상관은 많은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둘째, 학습몰입이 대학생활적응을 매개로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한 결과, 대학생활적응은 학습몰입과 학업중단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상세하게 확인하면 학업적응, 사회적응이 학습몰입과 학업중단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학생활적응 전체 값 및 대학환경적응은 완전하게 매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종합해 보면, 학습몰입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대학생활적응을 더 잘하며, 이는 학업중단을 낮추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몰입이 학업중단 수준에 영향

을 미치는데 있어서 대학생활적응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학생활적응은 학습몰입의 긍정적인 영향을 강화시켜 학업중단 수준을 낮추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대학이 학습몰입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대학생들의 학업중단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특히 대학생활적응을 제고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해 학습몰입을 향상시킴으로써 학업중단을 낮추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 REFERENCES

- [1] Ban, S., Cho, Y., Park, M., Shin, H., Rho, M., Kim, Y., "University enrollment quota adjustment and restructuring according to decline in school age population", The Journal of Politics of Education, Vol.20, pp. 189-211, 2013.
- [2] Kim, K., "An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local university students' halting their academic studies and satisfaction with their campus lif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1, pp. 378-387, 2011.
- [3] Cho, JS., "Determination analysis for students of university dropout",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3, pp. 1873-1880, 2011.
- [4] Kim, S.,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tudent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n two-year college student attrition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Vol. 29, pp. 123-149, 2002.
- [5] Kim, S., "A study on exploring the transfer process to four-year colleges or universities of two-year college students as a strategy of educational achievem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al Research, Vol. 17, pp. 70-91, 2004.
- [6] Kim, S., "A study on exploring the academic persistence and dropout of Korean universities and colleges'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Vol. 33, pp. 33-62, 2006.
- [7] Kim, S., "The development of scales on rating college students' academic persistence and the analysis of technical quality",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al Research, Vol. 23, pp. 1-29, 2010.

- [8] Csikszentmihalyi, M.,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NY: Harper and Row, pp. 285-290, 1990.
- [9] Lee, S. "The effect of flow on learning and self-efficacy on college adapt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undergraduat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25, pp. 235-253, 2011.
- [10] Noh, SR., Bae, SA.,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learning flow on college adaptation in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4, pp. 343-362, 2014.
- [11] Jun, KA., Park, JH., "A study on effective variables associated with provincial university students' leaned helplessness and helplessness behavior",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Vol. 37, pp. 57-81, 2010.
- [9] Kim, J., Kim, H., Lee, D., Kim, G., "Analysis of water use characteristics by household demand monitoring",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Vol.29, pp. 864-869, 2007.
- [12] Kwon, HJ.,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 adaption to college and scholastic achievement with the university environment climate perception*",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pp. 24-27, 2007.
- [13] Jeong, E., "The effects of interest and flow on college adjustment", *The Journal of Research and Education*, Vol. 44, pp. 71-99, 2012.
- [14] Csikszentmihalyi, M., "*Creativity: Flow and the psychology of discovery and invention*", NY: Harper-Collins Publishers, pp. 170-190, 1996.
- [15] Kim, A., Tack, H., Lee, C.,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learning flow scale for adul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24, pp. 39-59, 2010.
- [16] Baker, R. W., Siryk, B.,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SACQ): Manual*", Los Angeles: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1989.
- [17] Kim, H.,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ystem patterns and career decision-making and adjustment to college*", Graduate School Sookmyung University, pp. 25-26, 2005.
- [18] Baron, R. M., Kenny, D. A.,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pp. 1173-1182, 1986.
- [19] Sobel, M. E.,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s models*", San Francisco: Jossey-Bass, pp. 290-312, 1989.

## 저자 소개



### 명 성 민

2006: 연세대학교 의학전산통계학과  
의학통계학 박사

현재: 중원대학교 보건행정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의학통계학, 데이터마이닝,  
통계계산, 의료정보학

Email: smmyoung@jwu.ac.kr



### 이 흥 기

2002: 경기대학교 경영학 박사

현재: 중원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병원경영학, 리더십,  
조직관리

Email: it2020@jwu.ac.kr